

/지역 단신/

### 영암 하수처리장 최우수 사업장

영암 하수처리장이 전국 277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환경부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돼 5천만 원의 포상금과 인증패를 받는다.

영암군은 이번 평가에서 공공의 건강증진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분야, 부생자원의 순환 이용분야 등에 대한 평가에서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다.

또 농촌 생활용수 개발과 안정된 수돗물 생산, 하수처리장 보강, 슬러지 소각시설 효율적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사업비 부족 등 열악한 여건에도 급수구역 확대하고 환경관리공단의 기술 진단을 받은 점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학습장을 운영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군 관계자는 "올 상반기 정수처리시설 평가에 이어 이번에도 최우수의 영예를 안았다"면서 "맑은 물 공급과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 장성 오현마을-토지공 자매결연

장성군 북이면 오현마을과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지난 24일 '1사1촌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오현마을은 토지공사 임직원과 가족을 초청해 체험농업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저렴한 가격의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상호 상생기반을 구축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교류를 통해 상생의 기반이 구축돼 다 함께 잘사는 농촌사랑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현마을은 친환경 쌀 생산단지로 지난해 장성군이 시행하는 농촌마을 건설사업 지정분야 농업관광상품화해 농업의 소득을 꾀하고 있다. /장성=고재민기자 jbg@

## 쌀 대체작물 지자체마다 비슷 중복·과잉 재배...값 폭락 우려

### "지역 실정 맞고 특화된 작목 선정해야 성공"

전남지역 기초 지자체들이 쌀농사를 대체할 고소득 작물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대체작목이 녹차와 연, 복분자 등 4~5종으로 중복과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이 우려되고 있다.

웰빙 열풍을 타고 인기를 끄는 녹차의 경우 재배 면적이 급격히 늘어 지난해 말 현재 보성 885.4ha, 구례 285.5ha, 순천 212.2ha, 광양 97.7ha가 재배되고 있어 전남에서만 2천여 농가가 1천932ha에서 2천422ha를 생산하고 있

다. 게다가 영암,해남,화순, 담양 등도 활발히 재배면적을 확대하면서 생산량 증가와 중국산 저가녹차의 수입확대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분자의 경우 올 초 함평군에서만 229농가가 140여ha에서 237ha를 수확했지만 관내 복분자주 R업체의 연간 해 말 현재 보성 885.4ha, 구례 285.5ha, 순천 212.2ha, 광양 97.7ha가 재배되고 있어 전남에서만 2천여 농가가 1천932ha에서 2천422ha를 생산하고 있

는 연은 무안과 보성은 물론 영광·함

평 등 5~6개 군에서 대단위 재배에 나서고 있으며 논콩은 고흥과 무안·함평, 해바라기는 함평과 해남, 오디는 고흥과 영암, 석류는 고흥과 영암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면서 판로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작목별로 적정 재배 면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농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보성 녹차와 같이 대규모 생산지 내에 가공시설을 갖추는 등 생산과 판매를 연계하는 대체작물 육성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쌀 농사를 대체할 고소득 작목은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이미 특화된 작목, 비교적 수급이 안정된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곡성군 결면연 재배단지. /위작량기자 jrwi@

보성군 관계자는 "전국 녹차 생산량의 37%를 차지하는 우리 군은 생산·가공·유통·관공이 연계해 산업으로 성공했다"며 "구체적인 판로확보없이 무작정 녹차재배에 나서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좋은 소문이 나면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현실에서 하지말라고 만류하기 어렵다"며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이미 특화된 작목, 비교적 수급이 안정된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 지역 명품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송기동기자 song@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강수현)은 지난 24일 민·관·군 합동으로 200여명의 인력과 소방헬기, 대형크레인 등이 동원된 서남권 최대규모의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 담양 창평서 맛자랑 열린다

오늘부터 3일간 '음식 축제' 4회 창평전통음식제가 열린다.

창평전통시장 일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음식축제는 27일 밤 불꽃놀이를 시작으로 'KBS 빛고을가요 무대'가 펼쳐진다.

29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각 마을별로 특색있게 준비한 음식들을 대상으로 품평회가 열려 창평의 맛을 자랑한다. 또 도립극단과 중국극단인 무대를 꾸미고, 품바공연을 비롯 전통무용 공연, 사랑실은 노래봉사단 공연 등의 행사가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창평 특산물인 엿과 화과를 테마로 한 엿치기와 한과팔리머기 등의 체험행사가 준비돼 어린이에게는 색다른 재미를, 어른들에게는 어릴적 추억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창평농산물 판매코너가 상설 운영되며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사랑의 김장담그기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담양=차재화기자 jhw@

### 마을회관·경로당 등 '민간보조사업' 고흥군, 올 상반기 60억 지원

고흥군이 민선 3기에 추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5·31 지방선거가 실시된 2006년 상반기에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흥군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마을회관(쉼터, 우산각 포함), 부녀회관, 경로당 등의 지원사업에 소요된 총 167억 2천만 원 중 36%에 달하는 60억 2천여 만원이 2006년 상반기에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마을회관 (쉼터, 우산각 포함)의 경우 전체 225동 중 절반에 가까운 112동이 2006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건립되었으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또한 전체 50억 3천4백만 원 중 41%인 20억 6천600만 원이 올해 상반기에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흥군은 경로당과 마을회관, 부녀회관, 팔각정, 우산각, 쉼터, 건강관리실이

라는 이름으로 중복해서 건립되는 등 방만하게 시행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민선 4기 들어 군수공약사항으로 이들 시설물에 대한 통·폐합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대성수기자 dss@

### 이정섭 담양군수 등 시절단 중 안길현 '생태축제' 방문

이정섭 담양군수를 비롯 10명의 축하사절단이 안길현의 '2006 생태축제'에 초청되어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안길현을 방문한다.

담양군과 안길현은 지난 2004년 4월 대나무로 인연이 맺어진 이래 양 지방정부간 축제를 통한 방문교류로 우의를 돈독히 다져 왔다. /담양=차재화기자 jhw@

**편안하고 깨끗한 고급객실!**  
그 명성 그대로—

호텔에 비해 30% 저렴한 가격에 완벽한 서비스와 편안한 객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서비스"

광주비엔날레 일주일전

**25년 고객사랑!**  
대부분의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호텔

**좋은 음식 만들기 25년!!**  
최고의 재료, 최고의 기술, 최고의 서비스

민간자본보조사업 2006년 상반기 집행액 60억 2천만 원

신선한 푸짐세탁, 맛있는 음식만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서비스를 드립니다

광주지역 유일한  
상설 할인매장

DISCOUNT

**50% ~ 40%**

OLZEN

최대 50% 할인

50% ~ 40%

062-811-8109

**광주전날**

**가발**

심는가발 탄생!!

대신남녀 프리모 가발맞춤

**이용기능장 1호**

기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력! 이수재원장 직점기술관리

대신남녀 프리모 가발맞춤

좋은 음식 만들기 25년!!

최고의 재료, 최고의 기술, 최고의 서비스